

기업유치·스마트공장...지역기업 육성 거점기관 거듭난다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 경제와 산업 발전, 기업 혁신 및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업 유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및 정책 기획, 정부 공모 사업 등에서 연이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산업 정책기획을 통해 공모사업수탁 20건, 신규사업기획 15건을 수주한데 이어 강소기업육성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927건, 기술이전 57건, 산학연관 지역혁신지원 연계 네트워킹 67건, 기업유치 22개 기업 및 투자 유치 1174억원을 달성, 전남도 투자유치 대상에 받았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 2020년 평가에서 목표 대비 146%의 성과를 올려 2년 연속 S등급을 평가받아 전국 테크노파크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 추진중인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도 도맡아 수립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부생수소기반 산업단지, LNG 허브터미널, 그린수소종합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전남 그린수소 메가클러스터 10개년 계획'과 블루에너지,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등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 전략'이 대표적이다.

정부부처의 신규 공모사업을 20건을 수탁받아 1772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역 기업 육성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초대형 풍력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영농실증사업', '수송기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조성사업',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기반 실증 구축

지난해 스마트공장 보급 146% 성과 2년 연속 S등급 전국 1위 정부 신규 공모사업 20건 수탁 1772억 예산 확보 지역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혁신 초석 다져

사업',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802억원 규모의 기반구축사업, '전남 소재부품 뿌리연 구개발 사업', '산업고용 위기지역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이소결 구상 분말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25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등이 신규 수탁사업에 포함됐다.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이동형 용합기 고안정성 평가사업', '페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사업', '위기 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위기 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사업' 등 720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비연구개발(R&D) 사업도 들어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 4차산업 혁명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이 지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지난해 비대면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남 도내 85개소로 조지를 개편한 전남테크노파크는 14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올 들어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기술지원단, 행정지원실, 감사실 등 3단 2실 4센터 25개의 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전남테크노파크는 14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전남도의 전남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과 특허청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 등록에 따라 전남지식재산센터를 목표상공회소에서 넘겨받은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존 기술 이전 단계, 이전기술사업과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와 전남도 지식자산을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유지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통해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울진산업단지 등의 혁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무한경쟁의 시장 환경에서 기술 중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집적된 철강·화학 소재기업과 울진산단 뿌리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장치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다. 전남 제조업의 88%를 차지하는 여수국가산업 단지를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 울진제1산단, 여수-광양항 등 연계 산단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47개 사업 1조1000억원 규모의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대개조 사업'을 전남테크노파크가 주도한다.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과 기업의 육성과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설립 취지"라며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면서 정책 및 사업 기획, 정부부처 공모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은 지역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사업 추진”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2018년 10월 취임한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과거 어느 원장보다 전남테크노파크의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연구개발기관, 단체, 지역기업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기술 혁신과 첨단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테크노파크의 성과는 곧 지역 경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대처, 전남도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준비,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자세 등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유 원장은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인 창업 보육, 연구 개발, 시험 생산, 장비 이용, 인력 양성, 정보 유통 등 기본에 충실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 수혜자인 지역기업, 대학,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전남테크노파크가 추진중인 대표사업이 있다면.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표 사업은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계획 수립', '중대형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 기획',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고도화',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등이다.

-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관인데, 그와 관련된 사업은 무엇인가.

▲매년 기술 유망 중소기업육성육성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개발(R&D)과 기업 지원(비 R&D)을 한류유으로 지원해 유망기술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생산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면서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지원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을 통해 각각의 역량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스타트업 단계, 레벨업 단계, 스케일업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조 혁신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스마트 산단, 에너지-ICT지식산업센터 구축, 드론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중입니다.

- 지난해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총괄위원회를 맡아 운영중인데.

▲전남도가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했습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로 전남테크노파크가 그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총괄위원회에는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산업기

탄소중립 대응 수립 중점 추진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사업 80% 성과

술행기관원(KEIT), 순천대, 전남대(여수), 목포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루이코노미 6개 분야 중 제조업중심 에너지, 바이오, 트랜스포트 등 3개 분야에 대해 모두 41건의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남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부장'과 관련 전남도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센터 유치 등이 포함된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을 4개 추진전략, 10개 추진과제로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의 경영철학이 있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남의 산업 경제정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의 산업경제 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전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의 해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업 현장을 발로 찾아가고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중심, 기술중심, 시장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지역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